

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(2차)

1. 일 시 : 2015년 1월 16일(금) 11 : 00 ~ 12 : 00

2. 장 소 : 본부회의실 1

3. 참석자

구 분	위 원	간 사	배석자
참 석	박홍석, 이해우, 박홍준, 서정창, 홍순구 추헌봉, 이위철, 정보윤, 김형주, 이동규	김태영	하광봉, 허남인, 양신우, 박석강
불 참			

4. 회의 내용

- 위원장은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등록금 관련 교내 운영 여건 및 사회적 분위기 등에 대해 기획처장에게 설명 요구
- 기획처장은 아래 내용들에 대해 설명함
 -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
 - 대학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지만 국가 정책,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 및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
- 학생처장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인해 학교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교의 존폐 마저도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, 이 사실에 대해 모든 위원들에게 공감하길 당부함
- 학생위원의 단과대학 취업지원사업비 등 각종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질문에 학교 측 위원이 답변하고,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예산팀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함
- 학생위원은 등록금 동결 시 학생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없이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고, 학교 측 위원은 입학정원 감소 등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해당 요구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함
-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 측과 학교 측 동수를 요구하고, 학교 측 위원은 현재 구성인원은 『고등교육법』 제11조 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을 근거로 한 구성임을 설명하고, 지금까지 본교 등심위가 현재의 구성으로도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구성을 바꿔야 할 근거가 미약함을 설명함

- 아울러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함
- 학생위원은 만약 등록금 인상시 동결에 비해 얼마정도 수입이 오르며, 그 혜택에 대해 질의함
 - 학교 측 위원은 약 40억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며, 각종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함
- 아울러 현재 제공된 2015학년도 예산(안)은 기존 예산요구액에서 약 4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액이며, 감액된 예산만 살펴보아도 등록금 인상 요인은 충분히 설명 가능함을 설명함
- 위원장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등록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, 모든 위원이 이에 찬성하고 폐회를 선언함

5. 결정사항

- 3차 회의 일정은 1월 19일(월) 16시 30분으로 결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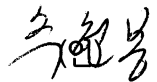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15. 1. 16.

위원장 박 홍 석



위원 추 헌 봉



위원 이 해 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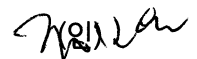
위원 이 위 철



위원 박 홍 준



위원 정 보 윤



위원 서 정 창



위원 김 형 주



위원 홍 순 구



전문가
위원

이 동 규

(인)